전남 혁신도시 효과·국가산단 역할 컸다
광주 공공부문 정규직화…일자리 질 높여

인구 줄어드는데 광주·전남 일자리 증가 배경은

道, 제조업 고용 2만3천명 증가 '전국의 절반'

'특별상' 광주 광산구 중기청년인턴제 등 호평

광주시와 전남도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기 때문이다.

우선 종합대상의 최고 영예를 안은 전남도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라는 양대축이 있어 일자리 대거 창출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전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연구소, 제조업, 금융업 등의 이전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철강업의 위기 속에서 여수·광양·영암의 국가산업단지도 선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접목을 통한 시장 선점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 제조업 고용 2만3천명 증가=1일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 동향에서 전국 제조업 취업자는 450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45만5000명)에 비해 4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만3000명이 전남에서 증가했다.

전남은 2015년 4월 제조업 종사자가 9만2000명에 불과했으나, 1년 후 11만5000명으로 집계되면서 무려 2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도 1년간 8000명(10.0%)이 새 일자리를 잡았다. 건설업(-8.0%), 농림어업(-6.0%) 등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어업 등 1차 산업, 건설업에 의존했던 전남도가 제조업, 금융업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고용 패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은 빛가람혁신도시였다. 전남도가 지난해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 '2014년 사업체 조사'에서 전남의 사업체 수는 14만3089개, 종사자 수는 65만764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각각 6200개(4.5%), 3만3845명(5.4%)이 증가한 것이다. 2013년의 증가 규모가 각각 3997개, 2만183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수·영암·광양을 밀어내고 나주가 새롭게 증가세에 힘을 실은 것이 그 원인이다. 전남 종사자 증가분의 19.06%인 6452명이 나주에서 증가해 22개 시·군 중 단연 1위였다. 여기에는 이전 공공기관 중 한전 등 9개 기관 4299명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8182명이 증가했고 건설업(6235명), 도소매업(5877명), 사회서비스업(363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이 조사에는 올 들어 불거진 조선·철강업의 침체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유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을 받은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4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처우개선 노력과 생활임금제 시행, 알바지킴이·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부문이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 광산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에서 돋보였다. 광산구는 기존 민간위탁업체 생활폐기물 수집·환경직 근로자 141명을 우선 채용했고, 위탁사무관련 기간제 근로자 51명도 직접 채용했다.

특별상을 받은 광주 북구청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청년허브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장 정책 적극 보완…'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박차"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전남도 이낙연 지사

조선·철강 구조조정기…노동자 재교육·재배치 집중

이낙연 전남지사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목표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자신감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려운 상을 받았다. 소감은?

▲엄청나게 큰 상이라 감격스럽다. 얼떨떨하다. 을 기대하면서 일했던 것은 아니며,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줬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수상 자체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받고 싶은 욕심은 난다.

-도정의 중심에 일자리를 놓은 이유는?

▲최고 목표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명의 땅'이라는 슬로건이 허전한 느낌이 있어 모든 공직자나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으면 했다. 구상하는 단계부터 고민이었는데, 지사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 중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주십시요"라는 글을 보고 그대로 도정 목표로 삼았다.

-민선 6기 후반기 일자리 관련 주요 시책을 소개한다면?

▲대상을 받은 이후가 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일자리 정책은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하고, 거기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대범하게 보완하겠다. 동시에 몇 개 주력사업(조선, 철강)이 구조조정기에 근접하고 있어 노동자의 재교육과 재배치에 집중할 생각이다.

-2년간 돌아본 현장에서 느낀 점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많은 현장을 다녀보니 전남이 부단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현장의 사람들은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정부, 40년 넘은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검토

여수 '동서발전' 1·2호기 등

정부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40년이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일 "최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산업부 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화력발전소 처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3기로 이 가운데 11기는 가동된 지 30년이 넘었다.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곳은 여수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호남 1, 2 호기 그리고 강릉 한국남동발전의 영동1호기 등 3곳이다.

/연합뉴스

한국 등 시민단체, 日 위안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1일 서울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한국·중국·일본·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1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작년 5월에 결성됐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가 용기있게 과거 사실을 알린 게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을 기리고자 11개국의 자료를 모아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한강 맨부커상 수상 기념 고향 장흥서 축하행사

"가난해도 이름은 남겨 올림픽 金보다 큰 가치"

소설가 한강의 부친 한승원(오른쪽) 작가, 모친 임감오(가운데) 여사가 1일 전남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딸의 맨부커상 수상 축하연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한승원 작가 "딸 원고 신춘문예 응모해 준 아내 덕분"

'문림(文林)'을 적신 '한강(韓江)'의 문운(文運)!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이승우 등 한국 문학사에서 내로라하는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 장흥은 '문림의 고장'이라고 불린다.

이 문림의 고장에 한승원 소설가의 딸 한강(46·韓江)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강의 한자 이름은 한강(韓江)으로, 한승원 씨가 "가장 쉬운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에서 지었다.)

1일 장흥 군민회관 3층에서 열린 작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축하연은 지난 달 22일 한승원 작가가 조촐한 음식만 대접했던 첫 번째 잔치와는 다른 흥겨움이 넘쳤다. 장구와 북이 어우러지고 풍성한 문화공연이 더해져 여느 축하연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 작가의 부친 한승원(77) 소설가가 주최하고 장흥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축하연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황주홍 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성 장흥 군수, 군민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푸짐한 음식이 마련됐고 민요와 판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부 주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무대에 올라 가락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주민들은 자신의 자식이 상을 수상한 것처럼 기뻐하며 한승원 부부에게 덕담을 건넸다.

이낙연 지사는 축사에서 "맨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를 긴장하며 읽었다. 대단히 치밀하고 집중력이 강한 한 작가는 식물의 얼굴을 했지만, 집필 능력만큼은 짐승"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귀한 따님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장흥에서 빛나는 별이 나왔다"고 말했다.

축하잔치를 찾은 주민은 "장흥 출신의 딸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럽다"며 "한승원 씨에게 부탁이라도 해서 한강의 사인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한승원 작가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한강을 만든 이는 우리 마나님"이라며 딸이 쓴 원고를 신문사 신춘문예 공모에 접수했다"고 공을 아내(임감오)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한 작가는 "내가 작가로 활동하던 70, 8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식들이 작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학도 의대나 법대, 상경대에 보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나를 존경했기 때문인지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름 하나 남기면 된다'는 말로 아이들이 문학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작가의 아내 임 여사는 "딸의 글이 남편의 것보다 읽기 쉽다"며 한강의 문학을 칭찬했다. 그의 말에는 쾌거를 이룬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자녀들에게 작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온 남편에 대한 존경이 묻어났다.

한편 축하연의 주인공 한강 작가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은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지난달 16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 서 접 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 형 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 · 금융사 · 임용고시 · 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